

국회선진화법 '손질' 새누리도 균열 조짐

여 두축 황우여·최경환 의견 엇갈려

민주선 "입맛따라 말바꾸나" 맹공

법안 도입 주역 남경필·원혜영 "과거 회귀" 비난

여당 일각에서 일명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이 동분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을 상기시켜면서 "상황과 입맛에 따라 이됐다 저됐다 입장에 바뀌면 안 된다"며 맹공을 펴 부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여당의 두 축인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의 의견도 갈리

는 모습이다. 지난해 5월 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던 황 대표와 정기국회에 산적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야당의 공세에 가로막혀 답답한 최원내 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듯한 형국이다.

황 대표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당시 일각의 국회선진화법 수정 주장 및 이를 둘러싼 여야 논란과 관련,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으나

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진화법이 18대 국회에서 어렵사리 탄생한 이후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리졌다"면서 "여야가 이 법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증진인 남경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대화와 토론, 탐색과 양보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여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들어낸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면서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 여야의 대타협으로 만들어낸 국회선진화법이 훌륭히 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을 적용하려 한다면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면서 "법 개정하는 데 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테스크포스(TF) 구성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권성동·김재원·김진태 등 윤사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경우 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법 심판 제청 쪽을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밝힌과 나섰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反)민주·반(反)서민 입법을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애초 법 제정에 여당도 주도적으로 나선 점을 내세워 "말바꾸기"라고 공세를 펴부었다.

전병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주장을 대해 "참으로 코미디"라며 "지역 갭은 건지 날치기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국회를 후진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혜영·김성곤·김영환 의원들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과 함께 국회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인사들로 "위험 운운하며 선진화법을 손보겠다는 것은 정쟁과 몸싸움의 과거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전병현 원내대표·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앞서 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풍찬노숙 투쟁' 호남행

28일 전북 이어 29일 전남 30일 광주 방문 '박대통령 공약 뒤집기' 공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5일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전국 순회투쟁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전날 밤 경기 구리의 한 경로당에서 북은 김 대표는 이날 성남시청을 방문, 민주당 소속 이재명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을 놓고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스스로 약속한 공약을 헌신처럼 내팽개치도록 그냥 놔두

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수원으로 이동,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과 함께 보육시설을 찾아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민심을 청취한 뒤 안산에서 시민단체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오는 27일 외신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이번 주말부터는 '남행버스'를 타고 전주를 비롯, 남부 지역의 민심 공략에 나선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28일에는 전

북을 방문하고 곧바로 다음날인 29일 전남으로 발길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30일에는 광주를 방문, 5·18 묘지를 참배하는 등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초 까지 호남에서 이동식 풍찬노숙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대표가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민주당은 국회를 지키고 있는 전병현 원내대표 주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과

민주당 의원 모임 '대안' 박대통령 '창조경제' 대해부

윤종록 차관 초청 세미나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연구모임 '대안'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창조경제' 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경영 :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강연에 이어 최재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9명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과

제인 창조경제에 대해 기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이를 정확히 이해해 야만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대안'은 지난 1월 민주당 의원들과 학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 의원 연구 모임으로 김관영·김기준·김승남·김영주·노웅래·문병호·민병우·부좌현·서영교·이상민·이언주·이준석·전순옥·정성호·정호준·최원식·최재천·홍의락·홍종학 의원 등이 참석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적어도 박근혜정부에서 지역 혁신 사업의 착공이라도 무조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지역별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를 순회 방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역 행기 행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오는 26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정부를 상대로 SOC 예산 확보를 거듭 압박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각 시·도당위원장들도 "지역별 혁신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무조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는 "지역별 혁신 대선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대폭 후퇴한다면 지방선거는 물건이었다고 봐도 된다"

면서 "시·도당위원장들도 이런 우려를 많이 드러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굿모닝 메디컬 타운 선착순 임대, 분양중

문화,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청소년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8층	801호 피부·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항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 메디컬타운

2013년 9월 16일 CGV 오픈

2013년 10월 15일

락볼링장 & 락카페 오픈예정

2013년 10월 25일

굿모닝 골프연습장 오픈예정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본관 1층	유니클로등 브랜드 의류매장 분양중
별관 1층	브랜드카페숍 및 미용실 분양중
별관 3층	일식 분양중
별관 지하	직원식당 겸 일반식당 분양중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 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캐릭스